**제목 : 악몽의 후유증**

**<잠에서 깬 엘리스>**

엘리스 : 시간이 벌써 밤이야.. 설마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잤던 거야?

엘리스 : 꿈에서 오빠가 나왔었어.. 엄마가 말 한대로야. 내가 엄마 말에 예민해져서 그런 꿈을 꾸었던 걸까? 그러고 보니 ‘그을린 편지’는 분명 엄마가 가져다 놓았을 거야.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.

**<엘리스 방안>**

뱀 인형 : 이건 할머니가 초등학교 입학기념으로 나한테 선물해 줬던 뱀 인형이야.

얼음여왕 인형 : 이건 이모가 나한테 선물해줬던 얼음공주 인형이야... 그런데 오늘따라 얼음여왕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오싹하게 느껴져.. 기분탓일까?

곰 인형 : 어제 꿈에 곰 인형이 나와서 날 도와줬어... 그런데 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져 있지?

토끼 인형 : 토끼 인형도 어제 꿈에 나왔었어. 이것도 역시 귀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여.

여우 인형 : 여우도 마찬가지야. 팔 부분에 그을린 자국이 있어.

**<문열고 나가서>**

엘리스 : 집안이 많이 추워졌어.. 아직 겨울이 되려면 멀었는데...

**<엄마와 대화>**

엘리스 : 엄마.. 지금 안자고 뭐하는 거야?

엄마 : 우리 엘리스니? 목소리는 우리 딸 하고 조금 다르지만 생긴 건 우리 엘리스야..

엘리스 : 무슨 소릴 하는 거야! 이 그을린 편지는 엄마가 가져다 놓은 거야? 삐에로 인형은 어디로 가져갔어?

엄마 : 아 내 정신 좀 봐..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엄마가 너도 알다시피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구나..

그런데 아까 전에 내 침대 옆에 네 이모가 찾아왔단다! 이모가 그러는데 너를 꼭 만나고 싶다는 구나.

엘리스 : 엄마.. 이모는 3년전에 죽었잖아.. 왜 이러는 거야 정말!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꺼야!

엄마 : 이런.. 많이 화났니?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사실 네 이모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단다...

이모의 영혼이 오늘 우리 집에 왔으니 엘리스야.. 조심해야 해.. 악마가 네 영혼도 노리고 있다고 이모가 말해줬어.

엘리스 : 엄마 그런 헛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! 그냥 빨리 자.. 나도 이제 졸리니까 자러 갈꺼야.

엄마 : 그래.. 엄마도 피곤하니 누워야 겠다... 잘자렴..

[엄마가 잠에 듬]

다시 엄마와 대화하면

엄마 : 우리 엘리스.. 잘자렴..

**<방을 나와서>**

엘리스 : 도대체 죽은 이모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... 엄마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..

엘리스 :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..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야겠어.

**<보스전>**

제목 : 거울의 목소리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엘리스의 이모는 남다른 미모로 마을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,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남자들이 노력했지만 이모는 아름다움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.

삽화2 :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미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큰 공포를 느꼈던 엘리스의 이모는 우연히 어떤 골동품상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준다는 거울을 구매하게 된다.

삽화3 :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던 이모에게 거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. 자신의 말을 따르면 영원한 아름다움을 갖게 될 거라고...

삽화4 : 처음에 이모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목소리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, 결국 거울이 알려준 대로 길고양이를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얼굴에 바르게 된다.

삽화5 : 다음 날 거울 속의 자신이 더욱 아름다워졌음을 느낀 이모는 계속해서 거울의 말을 듣게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해 더욱 잔혹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.

삽화6 : 그렇게 외부와 단절한 채 거울하고만 대화하며 지내던 이모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게 되었고, 거울과 대화한지 100일째 되던 날 평소와는 다른 차분한 거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.

삽화7 : 거울은 나지막하게 이제 거울 속으로 들어오면 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, 이모는 환희에 찬 표정으로 거울 속으로 몸을 던졌다.

삽화8 : 그러자 커다란 거울이 갑자기 이모 쪽으로 강하게 넘어지며 그녀를 덮쳤고 이모는 날카로운 거울에 베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.

삽화9: 엘리스는 이모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이모가 죽어있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과 함께 거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뭐야?? 여긴 또 어디야?

엘리스 : 난.. 분명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...

엘리스 : 이것도 역시 꿈인가? 하지만 꿈 치고는 너무 생생해!

베네디 : 거울아... 거울아...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? 바로 나? 호호호! 역시 넌 정확해~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저건 대체 뭐야?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... 설마 이모!?

베네디 : 뭐?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우리 엘리스의 피가 필요하다고? 엘리스야.. 들었지? 호호호.. 어서 일로와!! (빨간색 글자)

**<삐에로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 너도 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줄게! (빨간색 글자) OK

대사2 : 엘리스 이건 내가 아니야! 어서 여길 벗어나! OK

대사3 : 엘리스 너도 아름답고 싶잖아.. 너에게 새빨간 아름다움을 보여줄게! (빨간색 글자)

대사4 : 엘리스, 거울을 들고 있으면 얼음조각을 나에게 다시 보내서 공격할 수 있어! OK

대사5 : 거울아... 거울아...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? 뭐? 내가 아니라고? (빨간색 글자) OK

대사6 : 내 조카를 건들지마! 영원한 아름다움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어! ok

대사7 : 이 못난이 엘리스가 나보다 예쁘다고? 참을 수 없어! 가만두지 않겠어!! (빨간색 글자)

**<전투 종료 후 >**

베네디 : 거울에 비친 이게 뭐지? 이게 내 얼굴이라고!! 말도 안돼!! 이렇게 끔찍하다니... (빨간색 글자)

이모 (흰 그림자) : 그게 바로 진짜 너야.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뒤틀려져 버린 내면의 모습이지... (하늘색 글자)

베네디 : 웃기지마! 난 영원히 아름다워야 한다고.. 엘리스! 빨리 날 도와줘! 이런 모습으로 한 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!! (빨간색 글자)

이모 (흰 그림자): 엘리스.. 구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너에게 상처를 남겨서 미안해... 그럼 잘자렴.. (하늘색 글자)

엘리스 : 이모...? 이모 맞죠? 어떻게 된 거에요?

이모 (흰 그림자) : ...

엘리스 : 이모!!

**<골동품 거래서>**

품목 : 블라드 백작의 거울

제작년도 / 제작자 : 알수없음.

구매자 : 제나 로스펠

결재방법 : 총 금액의 10%만 현금으로 선결재, 100일 동안 사용 후 만족시 잔금 결재

제품설명 : 거울에 비친 사람을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소문난 거울입니다.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울로 단 한번도 반품된 적이 없을 정도로 제품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.

주의사항 : 밤 12시 ~ 2시 사이에는 절대 혼자서 거울을 부르지 마십시오.

판매자 D.H 골동품점